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와 영어의 연구 경향 비교 분석*

설수연 · 한민지 · 김영규**

Abstract

Sul, Sooyeon · Han, Minjee & Kim, Youngkyu. 2012. 10. 30. **A Comparative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KAP and EAP.** *Bilingual Research* 50, 79-105. What are the key research trends in KAP and EAP? With this research question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d compare the research trends in the two disciplines. In doing so, this article performs a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 of the relevant studies in major domestic journals (e.g., *Bilingu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from 2002 to 2011. A total number of 83 research articles in KAP,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were classified and coded according to an analytic framework in terms of (1) research scope, (2) objects of research, (3) research topics, and (4) research methods. The KAP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AP results based on an analysis of a total number of 166 research articles in EAP publish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earch trends in KAP and EAP have similarities in some respects including the research scope and research topics address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연구 경향 비교 분석(Comparative Trend Analysis of Research),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Korean for Academic Purposes [KAP]), 학문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 본 논문에 피드백을 주신 김인규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동 제1저자: 설수연, 한민지, 교신저자: 김영규.

1. 서론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Korean for Academic Purposes, 이하 KAP)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에 따르면 2000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학생 수는 5,818명이었으나 2011년 12월 말에는 88,468명으로 11년 동안 약 15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일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KA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전형길·박진옥, 2011). 이렇듯 KAP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고 있으나, 연구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연구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KAP 연구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KAP 연구들을 분류 및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나카가와 마사오미, 2008; 전형길·박진옥, 2011).

나카가와 마사오미(2008)는 듣기 교육에 한정하여 학문 목적을 위한 일본어 교육 연구와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를 분류하고 비교 및 대조하였다. 연구 주제의 범위를 ‘듣기 교육’으로 제한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자료 분석’, ‘교수 학습’, ‘교재’, ‘평가’, ‘시험’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출간된 한국어 교육 연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형길과 박진옥(2011)은 KAP 연구들을 모아서 분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연구자가 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정밀하게 연구를 분류하지 않고 ‘요구분석,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요목 개발 관련 연구’, ‘언어의 하위 기능별 연구’, ‘담화 특성 연구’의 3가지의 기준만으로 분류 항목을 설정하여 거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KAP 연구 논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명확한 분석 틀에 따라 통시적으로 KAP 연구 경향을 살펴본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2002년에서 2011년까지 10년간의 KAP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 중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등재지에 실린 총 83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KAP 연구의 경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 진행된 KAP에 관한 연구의 경향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 분야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어 교육에서 KAP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연구의 역사가 깊은 학문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이하 EAP)와 비교하여 KAP 연구의 현 상황과 KAP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AP의 연구 흐름을 살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EAP에서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논의들이 KAP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KAP의 연구를 정리하는 동시에 EAP의 연구 흐름과 비교해 보는 것은 KAP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KAP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첫째, KAP의 연구 경향을 살피는 것이다. 둘째, 앞서 살핀 KAP의 연구 경향을 EAP의 연구 경향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KAP 연구 경향과 EAP 연구 경향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KAP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2년부터 2011년에 발행된 논문 중에서 KCI에 등재된 학술지¹⁾에서 게재되었으며, KAP를 주제로 삼아 연구된 논문 총 83편²⁾이다. 연구 대상의 시기를 2002년에서 2011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볼 때, KAP를 주제로 한 연구는 김정숙(2000)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과 2001년에 KAP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각각 1편만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편의 논문을 각 해당 연도의 연구 경향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잉일반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KAP연구가 시발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01년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2010까지 발행된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이하 JEAP)의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EAP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설수연, 안지은, 백승주와 김영규(2011)의 연구 결과와 KAP 연구 경향을 비교·대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2. 분석 틀

KAP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연구의 범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KAP

1) 해당 학술지는 ‘한국어 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이중언어학’, ‘언어학’, ‘새국어교육’, ‘語文研究’, ‘텍스트언어학’, ‘어문논집’, ‘수산해양교육연구’, ‘우리말 글’, ‘담화와 인지’, ‘국제어문’, ‘한국언어문학’, ‘人文研究’, ‘순천향 인문과학논총’이다.

2)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은 2010년 12월에서 2012년 5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하였다.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립된 분석 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수연 외(2011)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 분석 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KAP 연구를 분류할 때 필요한 항목은 새롭게 추가하였다.

설수연 외(2011)의 분석 틀은 JEAP에 게재된 EAP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석 틀이다. 이 분석 틀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범위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Dudley-Evans와 St. John(1998) 및 Carkin(2005)을 활용하였으며, 학회지 게재 논문 분류는 차경환과 김영규(2010)를 참고하였다. 연구 방법과 관련된 항목을 설정할 때에는 Brown(2004)을 참고하여 기본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또한 EAP 연구의 최근 경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틀로 분석할 수 없는 논문들을 별도로 묶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설수연 외(2011)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KAP 연구들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분석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각 항목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EAP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류 항목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KAP 연구가 없어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 기본 분석 틀에서 분류 항목을 삭제하였다. KAP 연구가 축적된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EAP 연구에 비해서 연구 논문의 수가 적고 주제의 세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JEAP 각 권의 4호에서 다룬 특정 주제들³⁾을 분류하기 위해서 설수연 외(2011)에서 설정한 연구 주제의 하위 항목인 ‘기타’에 해당하는 KAP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연구 주

3) JEAP의 특별호에서 다룬 주제들은 ‘EAP 이론화’(2002년), ‘학술적 담화에서의 평가적 언어사용’(2003년), ‘대조/간문화적 수사학’(2004년), ‘고등 학문적 문식성’(2005년), ‘중등학교에서의 학문적 영어’(2006년), ‘말뭉치 기반 EAP 교수’(2007년), ‘연구 출판 목적 영어’(2008년), ‘비판적 EAP’(2009년), ‘대인관계성’(2010년)이다(설수연 외, 2011:157).

제의 하위 항목인 ‘기타’의 세부 항목들을 삭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KAP 연구들과 EAP 연구들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하위 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어 시장성이 견고하게 확보된 영어 교육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어 교육은 떠오르는 시장(emerging market)이기 때문에 ‘중·고등생’이나 ‘박사 후 과정생’에 해당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유학생의 대거 유입을 꼽을 수 있으며⁴⁾, KAP 교육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하위 항목으로 ‘대학/대학원 진학 준비생’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중·고등생’과 ‘박사 후 과정생’ 항목은 삭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 틀을 확정하였다. 연구 범위는 Dudley-Evans와 St. John(1998)의 EAP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일반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Korean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 이하 KGAP)와 특정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Korean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 이하 KSAP)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은 ‘학습자’와 ‘교수자/연구자’, ‘스태프’, 그리고 ‘비인간적 자료’로 나누었으며, ‘학습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P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대학/대학원 진학준비생’, ‘학부생’, ‘대학원생’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었다. ‘교수자/연구자’는 ‘원어민(Native Speaker[이하 NS])’과 ‘비원어민(Non-Native Speaker[이하 NNS])’으로 나누었으며, ‘비인간적(non-human) 자료’는 학습자, 교사 등 인간이 아닌 자료를 분석한 경우를 지칭하며, ‘말뭉치/텍스트’ 그리고 ‘기타’로 나누었다. ‘기타’에는 연구

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7년 56,006명에서 2011년 12월 말에는 88,468명으로 1.58배 늘어났으며,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 43,252명에서 2012년 12월 말에는 65,271명으로 1.51배 증가하였다.

대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항목과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의 연구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항목도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연구 주제는 ‘교수·학습’, ‘교수 기타’, ‘언어자료분석’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세부 분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은 ‘문법’, ‘쓰기’, ‘읽기’, ‘어휘’, ‘말하기’, ‘화용’, ‘듣기’로 나누었으며, ‘교수 기타’는 ‘평가’, ‘교수법’, ‘개인차’, ‘교원양성’, ‘교육과정/교수요목’, ‘요구 분석’, ‘문식성’⁵⁾, ‘정책’, ‘전략’, ‘교재’, ‘멀티미디어’, ‘사회문화’, ‘과제’로 나누었다. ‘언어자료분석’의 하위 항목은 ‘담화분석’과 ‘장르분석’으로 나누었다. Hewings(2002)를 참고하여 구어를 분석한 연구를 ‘담화분석’ 항목으로, 문어를 분석한 연구들은 ‘장르분석’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 항목은 Brown(2004)과 김영규(2005)를 참고하여 ‘일차적 연구 방법’과 ‘이차적 연구 방법’으로 크게 나누었다. 먼저, ‘일차적 연구 방법’의 하위 항목은 ‘질적 연구’, ‘조사 연구’, ‘양적 연구’, ‘혼합’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연구’는 ‘전통’과 ‘기법’으로 다시 세분화하였으며, ‘전통’은 ‘문화 기술지’라는 하위 항목을 두었고, ‘기법 연구’는 ‘사례 연구’, ‘담화분석’, ‘상호 작용 분석’, ‘교실 관찰’, ‘일기 연구’라는 하위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조사 연구’ 역시 ‘면접’과 ‘설문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양적 연구’는 ‘실험 연구’, ‘말뭉치 연구’, ‘준실험 연구’로 항목을 구성하여 각 연구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실험 연구’와 ‘준 실험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은 신뢰도 및 효과 크기의 보고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 항목은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경우(즉, 혼합 연구[mixed research]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5)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문식성’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문식성’(academic literacy)을 의미한다.

‘이차적 연구’에는 “이차적 자료 출처에 크게 의존하는 연구”(Brown, 2004:478)인 문헌 연구와 “연구자, 학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생산한 현존하고 있는 일단의 완료되고 기록된 연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종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Fink, 2005:3)인 선행 연구 고찰을 포함한다(김영규, 2005:76).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총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RISS 검색 엔진을 활용하였다. 1차 자료 수집에서는 논문 제목 및 주제어에 ‘학문 목적, 고급, 유학생, 한국어’를 포함한 논문을 중심으로 검색하여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2차 자료 수집에서는 1차 자료 수집 절차에서 완성된 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이 K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2002년에서 2011년까지 KAP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 중에서 KCI 등재지에 실린 총 83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평정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는 분석한 결과가 평정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하며, 평정자들의 분석 결과의 유사성을 뜻한다(성태제, 2002:139~141)⁶⁾.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까닭은 각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보하기 위

6) 성태제(2002)에서는 평가의 결과를 등급으로 부여할 때에는 ‘평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평가의 결과를 점수로 부여할 때에는 ‘채점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점수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자’라는 용어 대신 ‘평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함이다.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Cohen의 Kappa를 활용하였다. 먼저, Excel 2007을 활용하여 전체 83편의 논문들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7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1차적으로 두 명의 연구자들은 선정한 논문들의 제목, 초록, 주제어 및 본문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위해서 마련한 분석 틀에 각자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때 산출된 평정자 간 신뢰도는 $K=0.85$ 로 평정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한 논문 중에서 연구자 간의 불일치율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논의하였으며, 분석 틀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분석 틀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에 2차적으로 두 연구자들은 논문들 중에서 분석의 불일치율이 높았던 논문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가 $K=1.00$ 으로 산출되어 완벽한 평정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17편의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논문들을 새로 보완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우선 두 연구자는 66편의 논문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자 분류한 후에 교차 검정을 통해 다른 연구자가 분류한 논문들을 재검토하였다. 이때 두 연구자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켰다. 예를 들어, 이윤진(2011)은 1차 분류 결과, ‘교수·학습’의 ‘쓰기’와 ‘교수 기타’의 ‘교수법’으로 중복 분류하였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 이 연구는 윤리적 글쓰기라는 하나의 교수법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교수 기타’의 ‘교수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 틀의 여러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 분류 및 코딩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윤신애, 장윤미와 김영규(2010)는 ‘교수·학습’에서 ‘말하기, 듣기’와 ‘교수 기타’에서 ‘요구 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즉, 연구 주제의 하위 분류 항목에서 중복 분류되었

다. 박나리와 조선경(2003)은 ‘연구 대상’에서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분류되고 ‘비인간적 자료’의 ‘말뭉치/텍스트’에 재분류됨으로써 연구 대상 항목에서 중복 분류되었다.

3. 분석 결과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총 10년간의 각 연구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년 단위로 기간을 묶어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2002년과 2003년을 1기, 2004년과 2005년을 2기, 2006년과 2007년을 3기, 2008년과 2009년을 4기, 2010년과 2011년을 5기로 정하였다. 설수연 외(2011)의 EAP 연구 경향과 비교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묶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KAP 연구는 EAP 연구에 비해 연구의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나누어서 연구 결과를 보고할 경우 KAP 연구 경향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 기간을 2년 단위씩 묶어서 1기, 2기, 3기, 4기, 5기로 설정하였다.

3.1. 연구 범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KCI 등재지에 게재된 KAP 연구 범위별 논문의 수와 비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범위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KGAP	3	75.0	6	75.0	13	92.9	22	75.9	16	57.1
KSAP	1	25.0	2	25.0	1	7.1	7	24.1	12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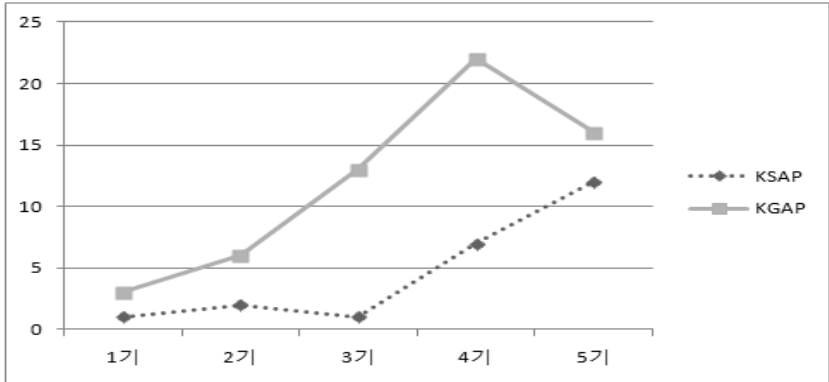
먼저, KGAP와 KSAP 연구의 사례수를 근거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1기에서 5기까지 연구 사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KGAP 연구는 1기(3편)부터 4기(22편)까지 꾸준히 늘어났다가 5기(16편)에 접어들면서 줄어들었다. 반면, KSAP 연구는 KGAP에 비해 연구의 사례수가 적지만 1기(1편)에서 5기(12편)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1기에서 5기로 갈수록 KAP 연구에서 KSAP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기에는 KGAP 연구가 75%이며 KSAP 연구는 25%를 차지하지만 5기에는 KGAP 연구가 57.1%이며 KSAP 연구가 42.9%를 차지하면서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연구의 연구 범위가 일반 목적을 위한 한국어 연구에서 특정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KGAP와 KSAP의 연구 범위의 경향성을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이는 추세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와 맞물리고 있다. 2007년에는 약 6만 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11년 12월에는 약 9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⁷⁾ 이러한 유학생의 증가는 KAP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 추정되며, 실제 KAP 연구가 특정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연구로 세분화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4기에서 5기 사이에 KGAP의 하강 추세는 KAP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 9만 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 더불어 KGAP 연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SAP의 상승 추세는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KGAP 연구를 토대로 밀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KAP 연구가 보다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예측의 또 하나의 근거로 볼

7) 아래의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실에서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12월 말)
인원(명)	56,006	71,531	80,985	87,480	88,468

수 있다.



<그림 1> 시기별 연구 범위의 비율

3.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의 대분류 분석 결과는 <표 2>로 나타내었고 중분류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의 대분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학습자	1	25.0	5	45.5	3	17.6	14	38.9	19	54.3
교사/연구자	0	0.0	0	0.0	0	0.0	1	2.8	2	5.7
스태프	0	0.0	0	0.0	0	0.0	0	0.0	0	0.0
비인간적 자료	3	75.0	6	54.5	14	82.4	21	58.3	14	40
중복	0		1		1		3		6	

<표 3> 연구 대상의 중분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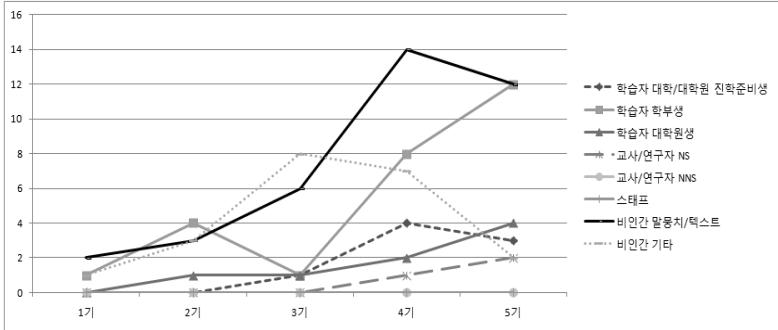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학습자	대학/ 대학원 진학 준비생	0	0.0	0	0.0	1	5.9	4	11.1	3	8.6
	학부생	1	25.0	4	36.4	1	5.9	8	22.2	12	34.3
	대학원생	0	0.0	1	9.1	1	5.9	2	5.6	4	11.4
교사/ 연구자	원어민	0	0.0	0	0.0	0	0.0	1	2.8	2	5.7
	비원어민	0	0.0	0	0.0	0	0.0	0	0.0	0	0.0
스태프		0	0.0	0	0.0	0	0.0	0	0.0	0	0.0
비인간적 자료	말뭉치/텍 스트	2	50.0	3	27.3	6	35.3	14	38.9	12	34.3
	기타	1	25.0	3	27.3	8	47.1	7	19.4	2	5.7
중복		0		1		1		3		6	

<표 2>를 살펴보면, KAP 연구의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학습자’, ‘비인간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진행되었다면, 4기와 5기에는 ‘학습자’, ‘비인간적 자료’, ‘교사/연구자’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다양화는 KAP 연구의 질적 그리고 양적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로 추정된다. 둘째, 연구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태프’는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나 연구자 이외에 한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사 이외에 교육 스태프나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다. ‘스태프’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KAP 연구

결과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산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10년에 발행된 JEAP의 연구에서도 ‘스태프’와 관련된 연구가 1편 정도 있는 것(설수연 외, 2011)으로 볼 때, 연구 대상을 ‘스태프’로 설정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 대상을 설정할 때보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더욱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연구 대상을 중복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표 2>에서 ‘중복’의 수치를 살펴보면, 1기에서 3기까지는 연구 대상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연구한 사례가 하나이지만 4기에는 3편이며 5기에는 6편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연구 대상을 중복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연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KAP 연구가 보다 짜임새 있게 설계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 연구 안에서 여러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연구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는 연구 방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 대상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이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번에는 연구 대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표 3>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경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는 시기별 연구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⁸⁾로써, 각 연구 대상의 변화 추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각 시기의 해당 연구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세로축을 100%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한눈에 해당 연구 대상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임을 밝힌다.



<그림 2> 시기별 연구 대상의 비율

먼저, 중분류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습자’는 ‘대학/대학원 진학 준비생’,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2>를 보면, ‘대학/대학원 진학 준비생’은 1기(0%)에서 4기(11.1%)까지 점점 증가했으나, 5기(8.6%)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은 2기(9.1%)에서 4기(5.6%)로 갈수록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4기(5.6%)에서부터 5기(11.4%)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학부생’의 경우에는 1기에서 5기 사이에 변화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을 중분류한 결과로 살펴보면, 대분류로 살펴본 결과와는 또 다른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KSAP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와 동일하게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KSAP 연구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연구자’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교사/연구자’의 하위 분류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교사 또는 연구자(교사/연구자 NS)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교사 또는 연구자(교사/연구자 NNS)이다. ‘교사/연구자 NNS’가 연구 대상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이 국내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교사 또는 연구자로 활동하는 NNS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중분류 ‘비인간적 자료’ 항목은 ‘말뭉치/텍스트’,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말뭉치/텍스트’ 연구는 1기 50.0%에 비해서 5기에 34.3%로 그 비중이 낮아졌지만 꾸준히 연구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하위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이 말뭉치나 텍스트 자료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고 객관화된 수치로 연구 결과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기에 비해 5기로 접어들면서 ‘말뭉치/텍스트’는 다른 연구 대상 항목에 비해서 비중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다른 연구 대상 항목에 비해서 축적된 연구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다양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말뭉치를 활용한 장르분석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볼 때, ‘말뭉치/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한 KAP 연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3.3. 연구 주제

연구 주제의 대분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 주제의 대분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교수·학습	1	14.3	5	33.3	9	34.6	22	33.8	21	43.8
교수 기타	5	71.4	8	53.3	14	53.8	37	56.9	22	45.8
언어자료 분석	1	14.3	2	13.3	3	11.5	6	9.2	5	10.4
중복	1		5		7		17		14	

<표 4>에 따르면 ‘교수 기타’가 1기에 71.4%, 2기에 53.3%, 3기에 53.8%, 4기에 56.9%, 5기에 45.8%로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기에 14.3%에 불과하던 ‘교수·학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5기에는 43.8%를 차지하며 ‘교수 기타’와의 차이가 불과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1기와 2기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KAP 연구의 기반이 잡혀가며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연구한 중복 연구가 큰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P 연구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 주제의 경향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하여 <표 5>에 연구 주제의 중분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쓰기’ 연구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4기와 5기에 이르러서는 각각 13.8%와 1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박석준(201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KAP에서는 특히 문어 사용 능력의 함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문법이나 어휘, 화용에 비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술에 대한 연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한국어 교육에서 큰 비중을 두어왔던 문법 연구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최근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과 학문 목적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이라는 KAP 연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읽기와 쓰기 통합(김정숙, 2007)이나 듣기와 말하기(강인선, 2005)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술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용 연구는 전 시기에 걸쳐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 맥락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용 연구의 특징과 KAP 연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용을 주제로 하는 KAP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표 5> 연구 주제의 중분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교수· 학습	문법	0	0.0	0	0.0	0	0.0	1	1.5	2	4.2
	쓰기	0	0.0	1	6.7	2	7.7	9	13.8	9	18.8
	읽기	0	0.0	0	0.0	2	7.7	4	6.2	2	4.2
	어휘	0	0.0	1	6.7	1	3.8	1	1.5	3	6.3
	말하기	1	14.3	1	6.7	2	7.7	4	6.2	3	6.3
	화용	0	0.0	0	0.0	0	0.0	0	0.0	0	0.0
	듣기	0	0.0	2	13.3	2	7.7	3	4.6	2	4.2
교수 기타	평가	0	0.0	0	0.0	2	7.7	5	7.7	0	0.0
	교수법	0	0.0	1	6.7	1	3.8	2	3.1	1	2.1
	개인차	0	0.0	0	0.0	0	0.0	0	0.0	1	2.1
	교원양성	0	0.0	0	0.0	0	0.0	0	0.0	0	0.0
	교육과정/ 교수요목	3	42.9	5	33.3	8	30.8	9	13.8	7	14.6
	요구 분석	1	14.3	2	13.3	1	3.8	4	6.2	4	8.3
	문식성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책	0	0.0	0	0.0	1	3.8	1	1.5	1	2.1
	전략	0	0.0	0	0.0	1	3.8	3	4.6	2	4.2
	교재	1	14.3	0	0.0	0	0.0	9	13.8	5	10.4
	멀티미디어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문화	0	0.0	0	0.0	0	0.0	1	1.5	0	0.0
	과제	0	0.0	0	0.0	0	0.0	3	4.6	0	0.0
	언어능력	0	0.0	0	0.0	0	0.0	0	0	1	2.1
언어 자료 분석	담화분석	1	14.3	2	13.3	1	3.8	3	4.6	4	8.3
	장르분석	0	0.0	0	0.0	2	7.7	3	4.6	1	2.1

다음으로 ‘교수 기타’ 영역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 ‘교육과정/교수요목’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AP 연구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교수요목’ 연구의 양은 후기로 가면서

도 여전히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후기로 가면서 ‘정책’, ‘전략’, ‘교재’ 등과 같은 주제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매우 발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2언어 연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차’ 관련 연구는 단 1편만이 발견되었다(원미진, 2010). KAP가 점차 KSAP로 세분화되고 학습자 개인의 상황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차’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자료분석’ 영역에서는 3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담화분석’이 ‘장르분석’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구어에 비해 문어자료에 의존하는 학문 목적의 특징에 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언어자료분석’ 연구의 양이 매우 적고 실제 연구 수의 차이는 불과 1~3편 차이에 지나지 않아서 KAP에서 ‘담화분석’이 ‘장르분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더불어 박석준(2012)에서도 언급하였듯,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학계의 최근 관심을 고려하면 ‘장르분석’ 연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4.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의 대분류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방법의 대분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이차적 연구	0	0.0	0	0.0	3	17.6	8	23.5	7	18.8
일차적 연구	4	100.0	8	100.0	14	82.4	26	76.5	25	81.2

<표 6>에 따르면, KAP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 일차적 연구가 이차적 연구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차적 연구는 3기에 등장하여 점차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KAP 연구 초기에 KAP 연구를 정의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는 문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KAP 연구가 갑작스러운 주목을 받으며 급격한 성장 가도에 놓이게 되면서 오히려 연구자들 간 이론적 기틀을 잡는 작업이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7>에 일차적 연구를 세분화한 중분류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7> 연구 방법 중 일차적 연구의 중분류 분석 결과

			1기		2기		3기		4기		5기	
			N	%	N	%	N	%	N	%	N	%
질적 연구	전통	문화 기술지	0	0.0	1	12.5	0	0.0	0	0.0	0	0.0
		기법	사례 연구	1	25.0	1	12.5	4	28.6	4	15.4	3
	담화 분석		1	25.0	2	25.0	1	7.1	3	11.5	4	15.4
	상호작용 분석		0	0.0	0	0.0	0	0.0	0	0.0	0	0.0
	교실관찰		0	0.0	0	0.0	0	0.0	1	3.8	0	0.0
	일기연구		0	0.0	0	0.0	0	0.0	1	3.8	0	0.0
	조사 연구	면접	1	25.0	0	0.0	1	7.1	1	3.8	4	15.4
설문지		1	25.0	2	25.0	4	28.6	6	23.1	7	26.9	
양적 연구	실험연구	0	0.0	1	12.5	1	7.1	3	11.5	0	0.0	
	말뭉치 연구	0	0.0	1	12.5	2	14.3	5	19.2	6	23.1	
	준 실험 연구	0	0.0	0	0.0	1	7.1	2	7.7	2	7.7	
혼합 연구		0		0		3		2		6		

<표 7>에 따르면, KAP에서는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나 조사 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 시기에 걸쳐 설문지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례 연구와 담화분석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특기할 만 한 점은 말뭉치 연구가 2기에 처음 등장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말뭉치 연구에 대한 최근 학계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연구 방법들이 중복되어 한 연구에 사용됨으로써, 혼합 연구의 수치가 1기(0)에서 5기(6)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기술지’, ‘상호작용 분석’, ‘교실관찰’, ‘일기연구’는 약 10년에 걸친 연구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KAP 연구는 1기에서 5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려는 추세에 놓여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방법의 다각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신뢰도와 효과 크기를 보고해야 하는 조사 연구와 양적 연구 총 51편에 대하여 그 보고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신뢰도를 보고한 연구는 단 8편(15.7%), 효과 크기를 보고한 연구는 단 1편(2.0%)(손정란, 200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KAP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양적 연구 종합(즉, 메타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효과 크기를 보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8> 신뢰도와 효과 크기의 보고 여부 분석 결과

	보고한 연구의 수(비율)	보고하지 않은 연구의 수 (비율)
신뢰도	8(15.7%)	43(84.3%)
효과 크기	1(2.0%)	50(98%)

4. 논의

KAP와 EAP 연구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양적인 측면 등 여러 면에서 KAP 연구를 EAP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어 교육에서 나타나는 KAP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따른 KAP 연구의 급격한 발전 양상을 볼 때, 연구의 역사가 깊은 EAP 연구와의 비교는 KAP 연구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KAP의 분석 결과 도출된 KAP 연구의 경향성을 EAP 연구의 경향성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AP 연구가 증가세에 있다. 이를 통하여 KAP 연구가 보다 특정 상황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수연 외(2011)의 EAP 연구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설수연 외(2011)에 따르면, ESAP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전공 분야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특정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영어 연구는 KAP와 EAP 양 분야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연구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을 중복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EAP 연구 경향성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설수연 외(2011)에서는 EAP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연구 대상의 다양한 조합을 피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말뭉치/텍스트 연구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점도 EAP 연구 경향성과 맥을 같이한다. KAP에서 말뭉치/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설수연 외(2011)에 따르면, EAP에서도 말뭉치/텍스트 대상의 연구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인 면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 주제의 면에서 초기에는 ‘교수 기타’의 ‘교육과정/교수요목’ 관련 연구가, 후기에는 ‘교수 학습’ 영역의 ‘쓰기’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쓰기 연구의 증가는 설수연 외(201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구어보다는 문어 교육에 집중하게 되는 학문 목적의 특성과 일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KAP 연구에서는 EAP와는 달리, ‘화용’이나 ‘문식성’, ‘멀티미디어’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KAP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의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KAP 연구에서는 이차적 연구에 비하여 일차적 연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설수연 외(2011)에서 밝힌 EAP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KAP 연구 방법과 EAP 연구 방법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KAP의 경우, 연구의 초기에는 이차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EAP에서는 EAP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정의한 문헌 연구 등의 이차적 연구가 탄탄하게 축적된 반면, KAP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EAP의 이론적 정립에 시간을 투자해온 영어 교육과는 달리,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문 목적이라는 화두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다질 여유가 없이 많은 연구들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KAP 연구 10년 즈음인 현 시점에서라도 KAP 연구의 토대가 되어 줄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EAP에서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말뭉치 연구가 KAP에서는 양적으로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AP에서도 말뭉치 연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KA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설문지이다. 이는 KAP 연구 주제의 경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KAP에서는 여전히 언어자료에 대한 분석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가 EAP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KAP

에서 쓰기 교육, 장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도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섯째,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효과 크기를 보고한 연구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설수연 외(2011)에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EAP에서는 양적 연구에 있어 신뢰도와 효과 크기 보고의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KAP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KAP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KAP가 EAP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많은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KAP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향후 KAP 연구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연구 대상 및 연구 주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EAP와는 달리, KAP에서는 여전히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의 편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스태프’ 등 KAP 논의의 대상이 교실 밖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EAP에서 다루고 있는 ‘화용’이나 ‘문식성’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화용’ 관련 연구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닌 KCI 등재후보지에서 단 한편(김인규, 2008)만 발견되었는데, 화용 연구의 특징과 KAP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큼을 고려하여 ‘화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문식성’은 최근 한국어 교육 전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므로 KAP 연구에서도 ‘문식성’을 논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를 보다 활발하게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말뭉치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도를 인정받은 연구 방법

이다. KAP에서도 KAP 말뭉치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KAP의 특성과 성격을 정의하는 이차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AP에서는 연구 초기에 이미 EAP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KAP는 KAP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문헌 연구나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차적 연구를 하기에 앞서 KAP의 이론적 합일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최초로 KAP와 EAP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P 연구 전반에 걸친 분석을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KAP 연구 하위 영역의 경향성을 집중 분석하고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선(2005). 한국의 외국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7권, 이중언어학회. 21쪽~40쪽.
- 김영규(2005). 연구 유형 분류를 통한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어 교육> 16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71쪽~89쪽.
- 김인규(2008). 대학 사회에서의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5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196쪽~234쪽.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9쪽.
- 김정숙(2007).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33권, 이중언어학회. 35쪽~54쪽.
- 나카가와 마사오미(2008).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교육에서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한국어 교육> 19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쪽~54쪽.

- 박나리, 조선경(2003). 학문적 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권,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45쪽~265쪽.
- 박석준(2012).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제37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쪽~42쪽). 서울: 고려대학교.
- 설수연, 안지은, 백승주, 김영규(2011).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에 나타난 연구 경향 분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6권, 글로벌영어교육학회. 143쪽~165쪽.
- 성태제(2002). 『타당도와 신뢰도』(개정판). 서울: 학지사.
- 손정란(2009). 노트 필기 전략 훈련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강의 듣기에 미치는 효과, <응용언어학> 25권, 한국응용언어학회. 1쪽~26쪽.
- 원미진(2010).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학습노력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중언어학> 43권, 이중언어학회. 277쪽~300쪽.
- 윤신애, 장윤미, 김영규(2010).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말하기 과제 중심 요구 분석: 중국인 이공계열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1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9쪽~188쪽.
- 이윤진(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윤리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 <이중언어학> 45권, 이중언어학회. 167쪽~188쪽.
- 전형길, 박진욱(2011).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의 구성 요소 연구, <한국어학> 52권, 한국어학회. 177쪽~210쪽.
- 차경환, 김영규(2010). 한국응용언어학회 학회지 게재논문(1983-2008)에 나타난 연구 경향 분석, <응용언어학> 26권, 한국응용언어학회. 91쪽~110쪽.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유학생 현황. 2012년 5월 2일 검색,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07.jsp
- Brown, J. D. (2004). Research methods for applied linguistics: Scope,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In A. Davis & C. Elder (Eds.), *The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pp. 476-550). Oxford: Blackwell.
- Carkin, S. (2005).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85-9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udley-Evans, T.,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k, A. (2005). *Conduction research literature reviews: From the internet to paper*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ewings, M. (2002). A history of ESP through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World: Online Journal for Teachers*, 1(3).

Retrieved June 14, 2012, from http://www.esp-world.info/Articles_3/Hewings_paper.htm

설수연(Sul Sooyeon)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전화번호: (02) 3277-2106/ Fax: (02) 3277-2899
전자우편: sulsu80@gmail.com

한민지(Han Minjee)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전화번호: (02) 3277-2106/ Fax: (02) 3277-2899
전자우편: kate1830@naver.com

김영규 (Kim Youngkyu)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전화번호: (02) 3277-4641/ Fax: (02) 3277-2899
전자우편: youngkyu@ewha.ac.kr

접수일자: 2012. 8. 20

심사(수정)일자: 2012. 9. 10

게재확정: 2012. 10. 22